

보도 일시	2022. 3. 24.(목) 12:00	배포 일시	2022. 3. 24.(목) 10:00
담당 부서	징세법무국 징세과	책임자	과 장 이은규 (044-204-3001)
		담당자	서기관 이병탁 (044-204-3027)

재산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시

- 수입 명차 리스, 재산 편법 이전 등 체납자 584명 집중 추적 -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·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.
 - 특히, 고액·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·상습체납자 584명(체납액 3,361억 원)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하였으며,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[수입 명차 리스]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·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,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(90명)
 - [재산 편법 이전]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(196명)
 - [호화생활 영위] 재산·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(298명)
-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노력한 결과 2021년에 2조 5,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·확보하였습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,
 -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·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.

1

재산을 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조사 착수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,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조직·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
- 이번 추적조사는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·이용하는 고액체납자,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,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사업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584명에 대해
- 체납자,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·사업 내역과 소득·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.
-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(참고 붙임1)

합 계	<유형1> 수입 명차 리스	<유형2> 재산 편법 이전	<유형3> 호화생활 영위 등 (빅데이터 분석)
584명	90명	196명	298명

- (유형1: 수입 명차 리스)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90명

[사례 1] 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산업체 사주의 수입 명차 리스

- ◆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 법인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
- ◆ 법인의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,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

[사례 2] 허위·과장 광고로 분양한 시행사의 수입 명차 편법 리스 이용

- ◆ 허위·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동산 시행사 B 법인은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
- ◆ 법인 대표가 최고급 수입 명차를 체납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,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

- (유형2: 재산 편법 이전)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혐의자 196명

[사례 3]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사채업자

- ◆ 사채업자 C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
- ◆ 추적조사에 착수하여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

[사례 4] 회사명의 연금보험을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법인

- ◆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 법인은 법인세 등을 무납부하여 고액의 체납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
- ◆ 법인 명의로 계약한 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하여 배우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

- (유형3: 호화생활 영위 등) 재산·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,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·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혐의자 298명

[사례 5]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서 호화생활하는 체납자

- ◆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 E는 본인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여 강제징수 회피
- ◆ 체납자 및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수색 등 추적조사 착수

[사례 6] 대표자 자녀 명의로 유사 법인 설립하여 강제징수 회피

- ◆ 도매업을 영위하는 F 법인은 매출누락으로 부가세 등 체납이 계속 발생하자 대표이사의 자녀를 대표로 하는 동종 업종의 G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
- ◆ 빅데이터를 통한 동종업종, 동일장소, 거래처 일치 등의 명의위장 혐의자로 분석되어 추적조사 착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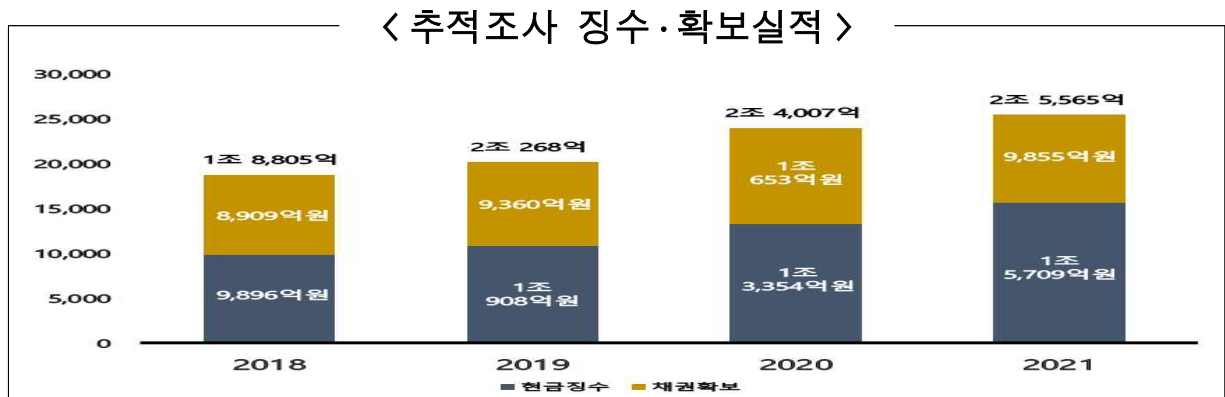
-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
- 아울러,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여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.

2 재산추적조사 성과 및 사례

가. 재산추적조사 성과

- 2021년에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·징수 활동으로 2조 5,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·확보하였습니다.

* 2021년 추적조사 실적: 징수 15,709억 원, 채권확보 9,855억 원



- 또한, 지난해에는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.

나. 주요 추적조사 사례

-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채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(참고 붙임2)

수색사례 ① 베란다 향아리 속에 숨긴 미화 7만 달러

-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하여 은닉하고 강제징수회피
- 체납자의 주소지에 잠복·대기하고 체납자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 개문하였을 때 수색 착수
 -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향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외화 다발 발견(신권 1백 달러 700장)하여 현금징수

수색사례 ② 자녀명의 주택의 옷장 등에 은닉한 외화 현금 8억원 압류

- 주식 양도대금을 외화, 현금으로 인출(400회)하고 자녀 명의 전원 주택에 은닉하여 강제징수 회피(금융거래내역 분석)
-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·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
 - 실거주지·주소지·사업장을 동시 수색하여 8억 원* 현금징수
 - * 1백 달러 3,072장, 5만 원권 3,787장, 1만 원권 12,618장 등

수색사례 ③ 고가주택 거주 백화점 VIP 체납자 순금 50돈, 상품권 등 압류

-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 거주,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며 강제징수 회피
- 생활 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거주지를 강남 소재 배우자 소유 고가주택으로 특정, 잠복을 통해 호화 생활 등 확인
 - 수색에 착수하였으나 체납자의 배우자는 수색을 거부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, 체납자를 설득하여 금고에서 순금 50돈, 상품권 등 압류

가.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적 활용

-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-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「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」를 (최대 포상금액 30억 원)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>

- 인터넷: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
 - * 국민소통 >> 가이드맵 >>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
- 전 화: 국세상담센터(국번없이 126)

<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>

징수금액	지급률
5천만 원 미만	-
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	100분의 20
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	1억 원 +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
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	3억 2천 5백만 원 +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
30억 원 초과	4억 2천 5백만 원 +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

- 국세청 누리집*(인터넷, 모바일)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.

*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역별·업종별로 시각화된 공개자료를 쉽게 확인 가능

<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>

- 인터넷: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
 - * 정보공개 >>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>>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
 - ☞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/ 지도공개 / 업종별 공개(법인)
- 모바일: 모바일 국세청(어플) >>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>>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(바로가기)

나.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,
-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다만,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, 압류·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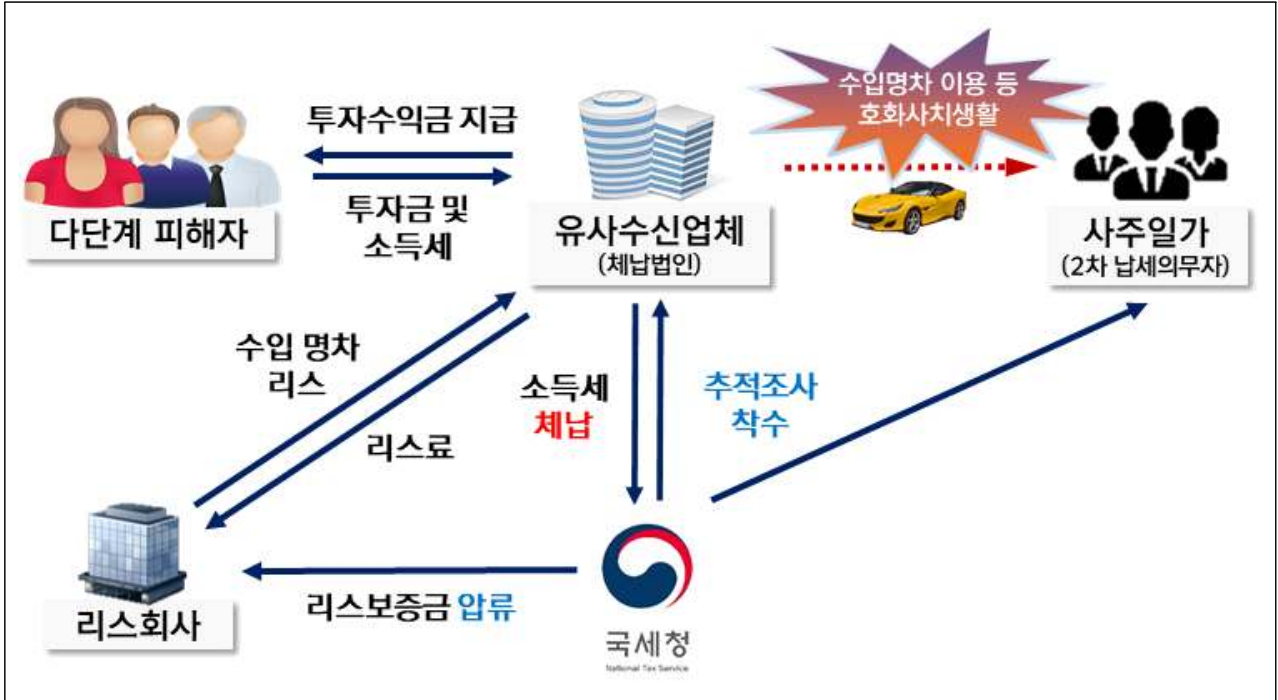
- 【붙임】** 1. 추적조사 유형별 선정사례
2. 수색 사례

붙임1

추적조사 유형별 선정사례

사례 1

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신편체 사주의 수입 명차 리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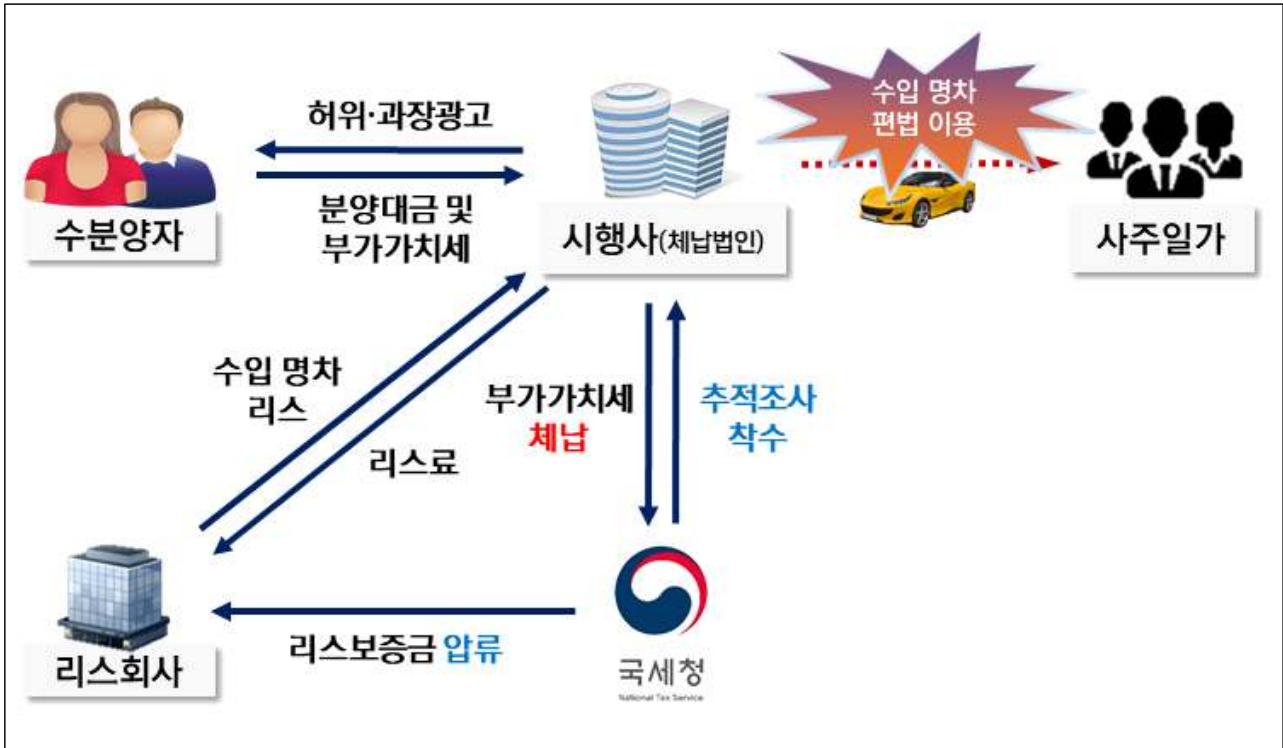
□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

-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A 법인은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함
 - A법인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

□ 체납추적조사 방향

- 리스회사에 예치된 리스보증금에 대해 압류하고,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는 한편
-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

사례 2 허위·과장 광고로 분양한 시행사의 수입 명차 편법 리스 이용



□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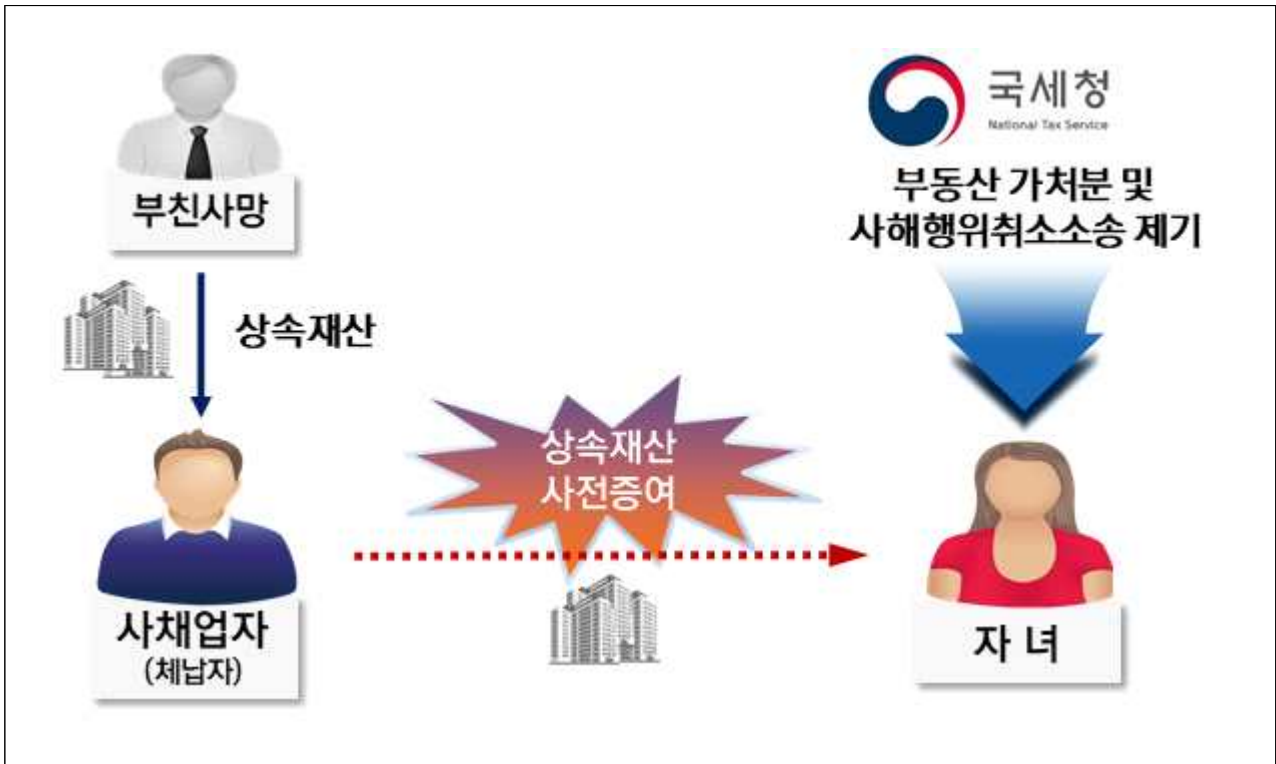
- 허위·과장 광고를 통해 상가 등 대규모 건축물을 분양하여 수분양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시행사 B는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음
- 시행사 B는 고가의 수입 명차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매하여 대주주 등 사주 일가 사용

□ 체납추적조사 방향

- 리스회사에 예치된 리스보증금에 대해 압류조치하고, 실사주 등 관련인이 체납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

사례 3

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사채업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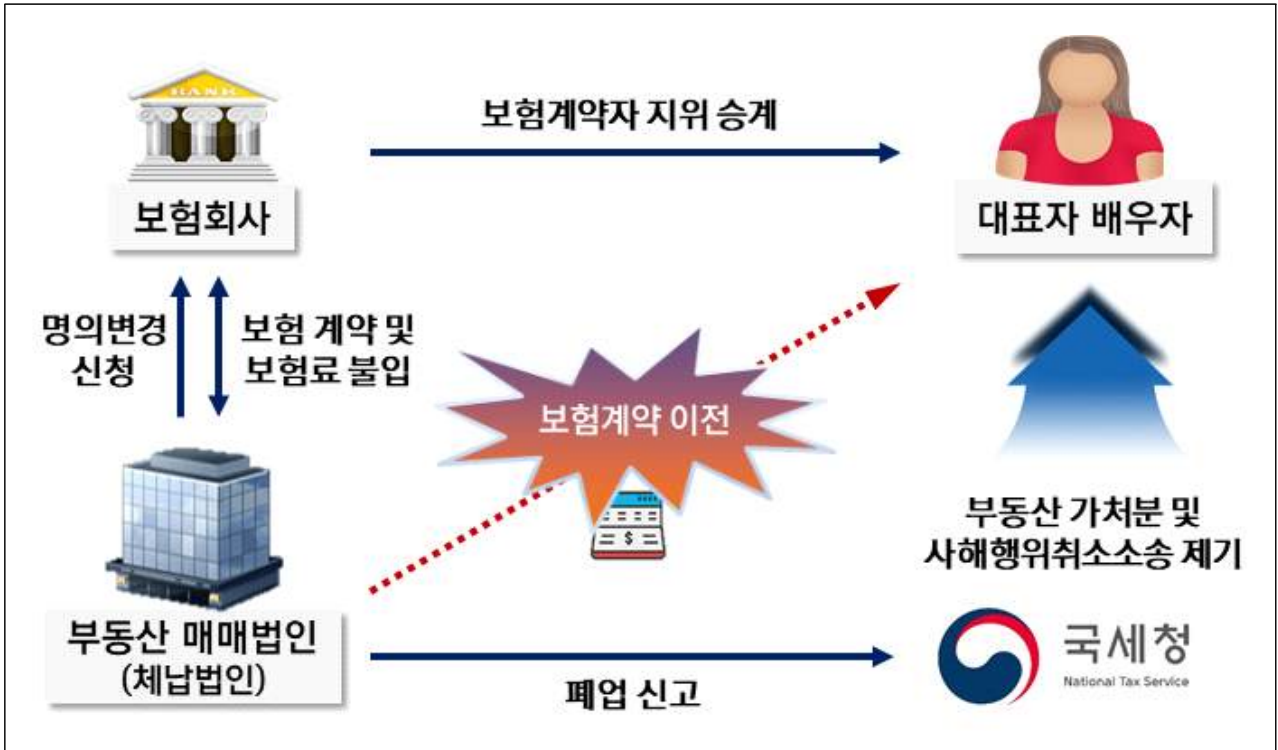
□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

- 사채업자 C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고리의 이자소득(3년간 원금의 150%)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체납 발생
-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에 자녀에게 사전증여

□ 체납추적조사 방향

- 추적조사를 착수하여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요건 등을 검토하여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
 - 자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보전한 후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

사례 4 회사명의 연금보험을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법인



□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

-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부가가치세, 법인세를 신고 하였으나 무납부하고 폐업하여 체납이 발생
 - 체납 발생 전 법인 명의로 계약하여 불입하던 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강제징수 회피

□ 체납추적조사 방향

- 추적조사 착수 후 D법인과 대표자 배우자간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요건 등 확인
 - 대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* 등에 대해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한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하고 고발 등 범칙처분 검토

*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료 추가 납입 등으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가액배상 청구

사례 5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서 호화생활하는 체납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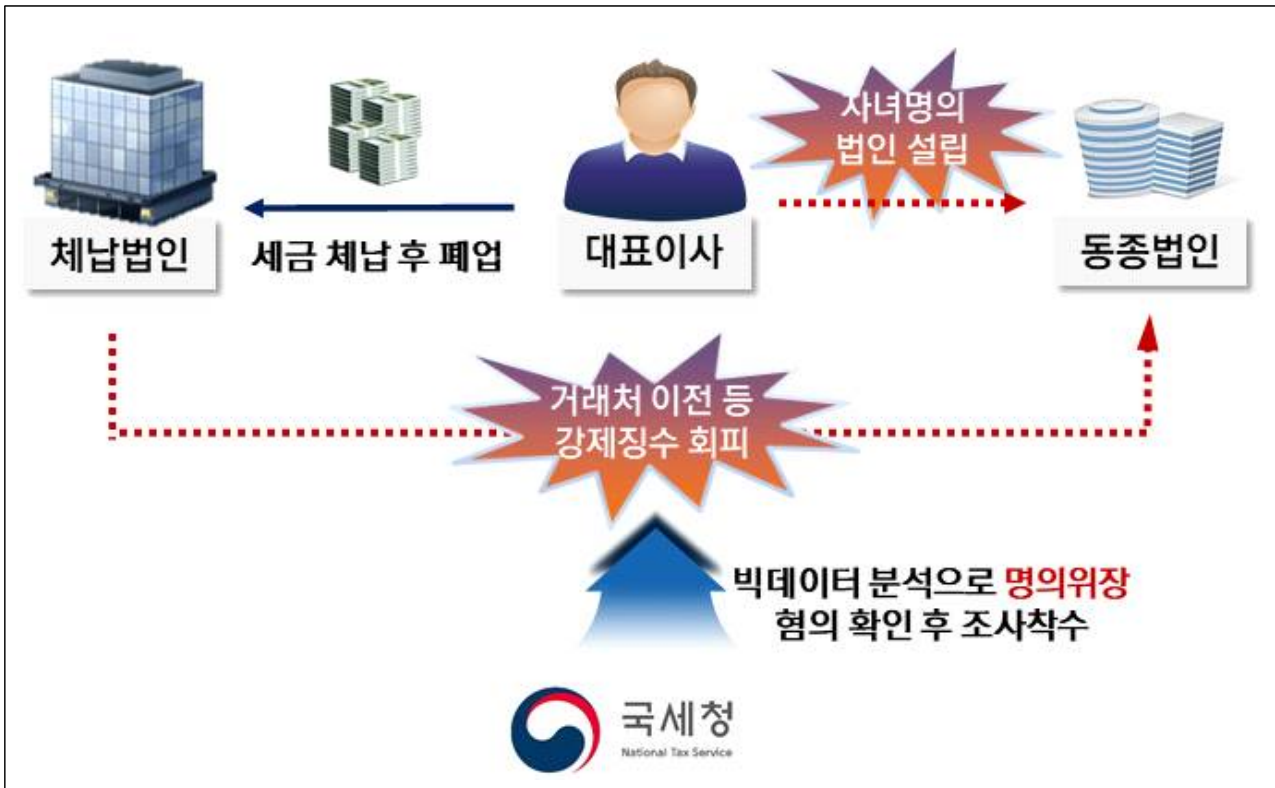
□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

- 땅부자로 알려진 E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인근에 소재한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·체납하였으며, 남은 부동산은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
-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수입 없이 호화생활을 영위

□ 체납추적조사 방향

- 체납자와 친·인척의 소득·소비 지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좁혀진 생활반경 내 가족들의 거주지 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여 수색 등 추적조사 착수

사례 6 대표자 자녀 명의로 유사 법인 설립하여 강제징수 회피



□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

- 공구·철물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F 법인은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, 법인세가 고지되어 체납이 발생하고 신용카드 압류, 출자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되자 폐업하고
 - 대표자의 자녀를 대표로 내세워 동종 업종의 G 법인을 설립하고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지능적으로 회피
- 빅데이터 분석(동종업종·장소 및 거래처 일치 여부 등)을 통해 F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, 거래처 등을 G 법인이 사실상 승계한 사실 확인

□ 체납추적조사 방향

-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명의위장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하고 재산은닉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하고 고발 등 범칙처분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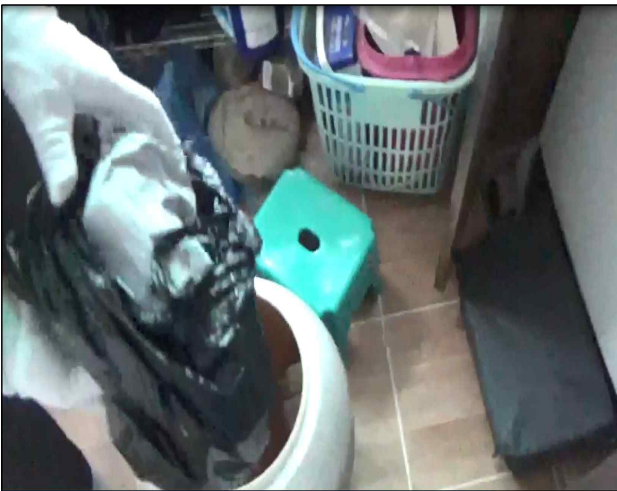
붙임 2**수색 사례****사례 1****베란다 향아리 속에 숨긴 미화 7만달러**

□ 강제징수 회피 실태

-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하여 은닉하고 강제징수회피

□ 추적조사 결과

- 체납자의 주소지에 잠복·탐문을 통해 체납자 및 가족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 개문하였을 때 수색 착수
- 체납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색을 받아들였고,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향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외화다발 발견(신권 1백 달러 700장)하여 현금징수



7만 달러 은닉 향아리



미화 7만 달러 압류

사례 2 자녀명의 주택의 옷장 등에 은닉한 외화·현금 8억원 압류

□ 강제징수 회피 실태

- 주식 양도대금 백억원 이상을 외화, 현금으로 400여회에 걸쳐 인출하여 자녀의 전원주택에 은닉하여 강제징수 회피(금융거래내역 분석)

□ 추적조사 결과

- 체납자의 주거내 은행 등에서 잠복·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
- 실거주지·주소지·사업장 등을 동시 수색하여 옷장·화장대 및 차고지 고급승용차에서 고액의 현금과 순금제품 등을 압류*
 - * 1백 달러 3,072장, 5만 원권 3,787장, 1만 원권 12,618장 등
- 양도대금을 현금 출금하는 등 고의적인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 및 관련자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예정



옷장에서 발견된 외화다발



현금·외화 등 8억 원 압류

사례 3 고가주택 거주 백화점 VIP 체납자 순금 50돈, 상품권 등 압류

□ 강제징수 회피 실태

- 고액 근로소득(인정상여)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기도로 주소지를 변경
-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백화점 VIP로 호화생활 영위하며 강제징수 회피

□ 추적조사 결과

- 생활 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거주지를 강남 소재 배우자 소유 고가주택으로 특정하고 탐문·잠복을 통해 실거주 등 확인
- 수색에 착수하였으나 체납자의 배우자는 수색을 거부하고 택시로 다른 장소로 이동, 체납자를 설득하여 옷장 안 금고에서 순금 50돈, 백화점 상품권, 현금·외화 등 압류



금고에서 순금양, 미화 등 발견



순금양, 미화, 상품권 등 압류